

61 광주광역시 61주년 기념사업
MILLET 공동주최
MOUNTAIN BY EXPERIENCE
엄홍길과 함께하는
한국 명산 16좌 등반

〈11〉진안 마이산



지난 26일 (주) 밀레-엄홍길 대장과 함께 하는 한국명산 12차 마이산 산행에 참가한 등산 애호가들이 전망대가 핀 철계단을 오르고 있다. 역암으로 구성된 마이산은 독특한 벌집 모양의 타포니(tafoni) 지형과 탐사의 돌탑 등 볼거리가 많아 등산객들의 시선을 끌었다.

쏟아지는 꽃비 속에 그대와 나의 봄날은 가네

(주)밀레-엄홍길 대장과 함께하는 한국명산 산행이 꼭 1년을 맞았다. 지난해 5월 계룡산에서 첫 발을 내딛던 밀레산행은 주왕산-변산-민주지산(삼도봉)-덕유산-내장산-천관산-가야산-해남 두륜산으로 산줄기처럼 매달 끊임없이 이어졌다.

지난 26일 진행된 12차 산행지는 전북 진안 마이산(馬耳山·명승 제12호). 오전 9시께 광주를 비롯해 전남·북 지역에서 18대의 버스에 나눠 타고 온 1400여명의 등산 애호가들이 남부 주차장을 가득 매웠다.

동봉(수마이산·678m)과 서봉(암마이산·685m)으로 구성된 마이산은 계절에 따라 불리는 이름이 다르다. 봄에는 안개속에 우뚝 솟은 두 봉우리가 쌍뿔배 같다 해 '뿔대봉', 여름에는 수목 사이에서 드러난 봉우리가 용의 뿔처럼 보인다 해 '용각봉'(龍角峰), 가을에는 단풍든 모습이 말귀처럼 보인다 해서 '마이봉', 겨울에는 눈이 쌓이지 않아 먹물을 찍은 붓끝처럼 보인다 해서 '문필봉'(文筆峰)이라 부른다고 한다.

부엄 대장과 함께하는 산행 1년 맞아 이번 산행은 남부 주차장을 출발해 일주문을 지난 왼쪽으로 꺾은 후 고금당열 능선에 올라서 전망대~봉두봉(해발 540m)을 거쳐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원정회귀 코스(5.4km)로 3

직각암벽 마이산 아찔한데

등반객 걸음엔 여유 묻어나고

엄대장과 명산산행 1년 축하

'아름다운 나라' 축석 열창도

시간여가 소요됐다. 출발한지 20여분이 채 지나지 않아 워낙 많은 인원이 산행을 하다 보니 등산로는 금세 장사진(長蛇陣)을 이뤘다. 한 발자국도 나갈 수 없어 짜증을 부릴만한 상황이지만 전주에서 온 동성으로 "딱 내 스타일이네. 천천히 가니까 좋아"라며 여유롭게 웃는다. 전주 화요 여성산악회 배정옥(67·전주 삼천동)씨는 "산마다 매력이 있다. 특히 지리산 종주를 하면서 뱀사골 산장에서 바라본 손에 잡힐 듯 쏟아지던 별빛이 인상적이었다"면서 "산이 좋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산이 날 부른다고 생각한다. 산에 들어오면 욕심이 없어지고, 마음이 비어진다. 모든 것을 안아주고 싶고 이해하게 된다"고 말했다. 능선길에 선 2층으로 된 팔각정 전망대까지는 1시간이 소요됐다. 전망대에서 봉두봉으로 이어지는 등산로

는 간혹 철제 사다리를 오르고, 밧줄을 잡고 내려가야 하지만 대체적으로 고도차가 없어 편안한 휴길이다.

봉두봉에서 볼꾼 솟은 수마이봉과 암마이봉 방향으로는 아쉽게도 갈 수 없다. 수마이봉은 걸어서 올라갈 수 없는 급경사이고, 암마이봉은 자연휴식년제 코스로 지정돼 2014년 10월까지 오를 수 없기 때문이다. 발걸음을 돌려 봉두봉을 지나 10여분이면 탐사열 도로에 내려서게 된다.

지질학 연구결과 마이산은 중생대 백악기에 해당되는 1억년전 산어귀에 형성된 호숫가였다. 그런데 지각변동으로 주변지역보다 600m이상 솟아 올라 역암덩어리 산이 됐고, '천연 콘크리트'인 역암은 벌집 모양의 독특한 '타포니'(tafoni) 지형을 만들었다.

◇비비람에 쓰러지지 않는 탐사 돌탑 탐비=산행 끝자락에서 산행을 함께 한 소프라노 채미영(44) 중앙대 음대 성악과 겸임교수가 "저 산자락에 긴 노을지면/ 걸음걸음도 살며시 달님이 오시네~"라는 아름다운 노랫말의 가곡 '아름다운 나라'를 축석에서 열창해 참가자들로 부터 갈채를 받았다.

밀레 산행에 8차례 참가한 백경희(55·광주 광산구 장덕동)씨는 "이번 산행코스가 다소 짧아 아쉬웠다. 산행을 하면 건강에도 좋고, 무엇보다 사업에도 자신감이 생겨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암마이봉 산자락에 자리한 탐사(塔寺)는 임실 출신 이갑용(1860~1957)처사가 쌓은 80여개의 독특한 돌탑으로 이름이 높다. 지난해 8월 태풍 '볼라벤'이 내륙을 강타했을때도 '마치 춤을 추는 듯 흔들거렸지만' 1기도 무너지지 않았다고 하니 신비롭기만 하다.

엄홍길 대장은 "탐은 어떤 의미를 지니기 위해 쌓기 때문에, 탐은 신령스런 기운을 담고 있다. 히말라야 등반을 할때 베이스캠프에 라마단을 만들고 안전등반을 기원하는 제를 지낸다. 등반코스에 쌓는 탐은 길잡이 역할을 한다"고 히말라야의 경험과 연계해 탐조성의 의미에 대해 설명했다.

산행객들은 마이산 탐사에서 남부 주차장까지 2km 구간 벚꽃터널을 지나며 요즘 유행하는 가요 '벚꽃엔딩'을 연상시키는 꽃비를 만끽하는 호사를 누렸다. 한편 지난 15일 창립 5주년을 맞은 엄홍길 휴먼재단은 다음달 17일께 네팔 에베레스트 트레킹 시작점인 지리(Jiri)마을에 8번째 '휴먼스쿨' 기공식을 갖는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TRUE PRODUCTS, REAL PEOPLE

아웃도어의 진실-밀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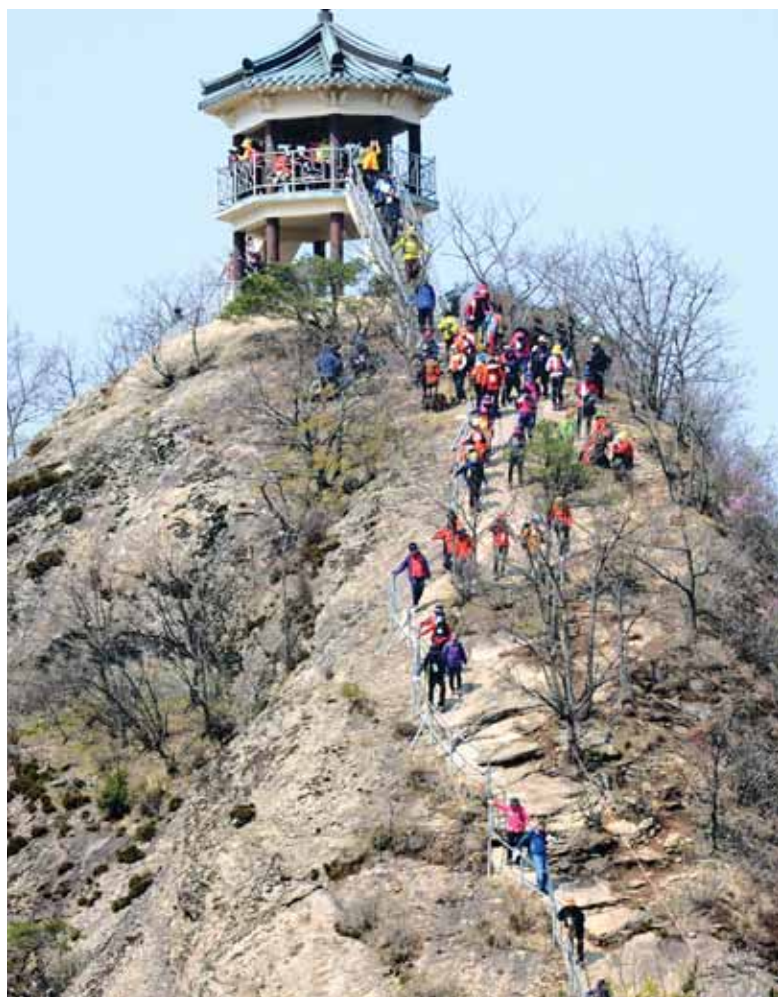
사람보다 높은 산은 없다
다가가기도 어렵고
헤아리기도 힘들다
그래도 올라야 할 산이라면

진실하라
진실하라

진실이 온다
아웃도어의 진실-밀레



WWW.MILLET.CO.KR
MILLET
MOUNTAIN BY EXPERIENCE



능선길에 자리한 전망대. 이곳에 올라서면 볼꾼 솟은 마이산과 탐영제 벚꽃터널, 온산에 번지는 초록의 빛깔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다.